

현대 사회에서 대중의 관심은 신체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신체, 특히 날씬한 신체에 대한 관심은 매우 크다. 한국 여성 민우회 여성 환경 센터가 여성 10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자신이 정상 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체중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83.5%에 달했으며, 정상 체중 여성의 절반 가량이 스스로를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겨레 신문, 2003년 5월 12일). 그러나 날씬한 신체를 성취하는 방법으로 자주 사용되는 다이어트(절식 혹은 단식)는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인 듯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균형잡힌 섭식 행동을 파괴하고 건강을 해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나라 통계청의 자료에서도 15~19세 남녀 청소년의 경우, 건강 관리 방법으로서의 다이어트 비율은 1992년 10.7%에서 1999년 12.6%로 증가했으며, 20~29세 남녀 성인도 1992년 13.9%에서 1999년 17.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1999). 즉, 상당수의 청소년과 성인들은 날씬한 신체를 위해 손쉽게 다이어트를 실시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없이 행해지는 경우, 특정 영양소의 섭취 부족으로 인한 영양 실조나 신경성 거식증이나 폭식증같은 섭식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체중 조절 방법이다.

정상적인 식사의 거부, 폭식과 폭식으로 인한 체중 증가를 막기 위해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이는 섭식 장애는 주로 여성들에게서 나타나며, 드물지 않게 발병하지만, 쉽게 만성화되고, 체중과 몸매같은 신체 영역에 대한 심각한 인지적 왜곡을 보이며, 다양한 의학적 합병증과 심각한 수준의 기능 저하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심리 장애이다(APA, 1994). 현재까지 알려진 섭식 장애의 위험 요인들로는 낮은 자아존중감, 완벽주의, 날씬한 이상적 모델의 내면화, 신체에 대

한 불만족 등의 심리적 요인들 아동기 성학대 경험, 다이어트 등의 경험 요인을 포괄한 개인적 요인(Stice, 2001)과 가족내 섭식 장애 유무, 무관심이나 지나친 밀착같은, 가족내 상호 작용의 특정 패턴 등의 가족 요인, 그리고 날씬해지라는 사회문화적 압력(Stice, Mazotti, Krebs & Martin, 1998; Field, Camargo, Taylor, Berkey & Colditz, 1999; Stice & Agras, 1998) 등의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여러 위험 요인들의 상호 작용을 거쳐 섭식 장애가 발현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심리 장애들에 비해 섭식 장애의 위험 요인으로서 사회문화적 요인들은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회문화적인 영향이 직접 심리 장애에 반영되는 경우는 섭식 장애가 거의 유일하기 때문이다. 즉, 역사적으로 모든 사회와 문화권에서는 이상적인 여성상에 대한 기준이 있었지만, 과거에는 각 사회/문화/계층마다 이상적인 여성미에 대해 다양한 기준을 지니고 있었으며, 비교적 일부의 여성들만이 이러한 기준을 달성하도록 압력을 받았다. 그러나, 매스 미디어의 발달 이후, 전 사회/문화/계층에서 여성의 외모에 대한 기준이 날씬한 외모로 획일화되었고, 이러한 획일화된 여성 외모의 기준이 매우 빠르게 전달되며,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매우 사실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가능해졌다. 결국 매스 미디어의 발달을 통해 사회문화적 압력은 여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를 이상적인 날씬한 여성상과 구체적으로 비교하도록 촉진하며,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을 증가시키고 날씬해지려는 과도한 노력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섭식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압력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가정과 일치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1995년에 TV 방송이 처음 도입된 피지의 사춘기 소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에서, 거의 TV 방송에 노출되지 않은 1995년 당시 중고등학교 소녀들과 3년 이상 TV 방송에 만성적으로 노출된 1998년 당시 중고등학교 소녀들을 비교한 결과, 실제 비만 정도를 반영하는 신체 질량지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도, 식사 태도 검사-26(EAT-26)에서 20점 이상의 절단 점수(즉, 병리적인 수준의 다이어트를 보인다고 가정할 수 있는)를 받는 소녀의 수, 체중 조절을 위해 구토를 유도하는 소녀의 수는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Becker, Burwell, Gilman, Herzog & Hamburg, 2002). 또한, 날씬한 매체 영상이 신체 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 연구들을 메타 분석한 결과, 보통 체형 모델, 뚱뚱한 체형 모델, 혹은 무생물 물체에 대한 영상을 보았을 경우보다 날씬한 매체 영상을 보았을 때, 신체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좀더 저하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피험자가 19세 미만인 집단과 원래 신체 불만족이 높았던 집단에서 더욱 강력하게 나타났다(Groesz, Levine & Murnen, 2001). 그리고 6학년, 9학년, 12학년 소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TV나 잡지를 통한 날씬한 모델에 대한 노출은 소녀들이 자신의 신체와 이상적 신체 혹은 달성해야만 하는 신체와의 격차를 지각하는 정도에 따라 섭식 장애 병리에 연결된다는 결과가 나타나(Harrison, 2001) 사회문화적 압력은 섭식 장애의 중요 위험 요인임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섭식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서, 외모의 사회문화적 기준에 대한 개인의 태도는 섭식 장애의 원인 이해 및 치료에서 반드시 고려해야할 중요한 요인이다. 또한 사회문화적 압력에 대한 개인의 태도는 자신의 신체와 날씬한 모델의 신체 비교나 신체 불만족과 같은 섭식 장애에 있어 개인적 측면의 위험 요인 형성과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낮은 자아 존중감이나 다이어트 같은 개인적 측면의 위험 요인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섭식 장애 발생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대해서 개발된 측정 도구들중 연구와 임상 현장에서 비교적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기 보고식 측정 도구는 거의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다. 최근 Heinberg, Thompson과 Stormer (1995)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측정하는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SATAQ)"를 개발하였는데 미국 여대생 집단과 미국 여중생 집단 모두에서 좋은 타당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Heinberg, Thompson & Stormer, 1995; Smolak, Levine & Thompson, 2001). 미국 여대생 집단에서는 이 척도의 소척도들이 섭식 장애 병리를 측정하는 섭식 장애 척도(EDI-2)의 신체 불만족 소척도, 마르고 싶은 욕망 소척도, 폭식증 소척도와 .28에서 .61에 이르는 상관 관계를 보였으며, 미국 여중생 집단에서도 이 척도는 외모에 대한 만족을 측정하는 신체 존중감 척도(Body Esteem Scale)와 -.72의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특히 외모중 체형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소척도와는 -.63의 상관을 보였고, 체중 조절 수단의 빈도에 대한 측정치와 .60의 상관을 보여 신체 관련 사회문화적 태도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수록 체중 조절 수단을 더 많이 사용함을 시사하였다. 또한, 이 척도를 섭식 장애 환자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폭식증 환자 집단과 기타 섭식 장애 집단은 통제 집단과 인식 소척도 평균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내면화 소척도에서는 신경성 거식증 환자 집단, 폭식증 환자 집단, 기타 섭식 장애 집단이 모두 통제 집단과 유의한 평균 점수 차이를 보였다(Griffiths, Beumont, Russell, Schotte, Thornton, Touyz & Varano, 1999).

본 연구는 SATAQ를 우리나라 여대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척도의 요인 구조를 알아보고, 섭식 장애 병리 척도 및 신체 불만족 척도와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이 척도의 구성 타당도와 공인 타당도 자료를 제시하려 한다. 다시 말해,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우리나라 여대생 집단에서도 원래 척도 제작시 나타난 2 요인 구조가 유지되는지 알아 보는 것이며, 둘째, 상관관계 분석과 집단간 비교를 통해 섭식 장애 병리 혹은 이상 섭식 행동과 신체 불만족등의 변인과 SATAQ를 통해 측정되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정적인 상관을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방 법

대상 집단

심리학 관련 과목을 듣는 360명의 여자 대학생에게 설문지를 집단으로 실시하였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1.8세($SD=2.7$), 평균 신장 162.4cm($SD=4.7$), 평균 체중 51.6 kg($SD=5.3$), 신체 질량 지수(BMI)는 19.6($SD=1.9$)였다. 대상 집단의 신체 질량지수는 정상 범위(18.5-24.9)에 해당되었으며, 대상 집단의 98.5%는 정상 범위 혹은 저체중 범위의 체중 질량 지수를 보였다.

측정 도구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척도(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

이 척도는 14문항으로 5점 척도상에 응답하며, 척도 제작시 요인 분석을 통해 구성된 사회문화적 기준에 대한 인식(awareness)과 내면화(internalization)

의 두 소척도가 포함되어 있다(Heinberg, Thompson & Stormer, 1995). 사회문화적 기준에 대한 인식 소척도의 경우,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력이 중요하다', '요즘의 문화에서 성공하려면, 신체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야 한다'등의 내용으로 문항이 구성되었으며, 내면화 소척도의 경우에는, '잡지, TV에 나오는 사람들과 내 외모를 비교한다', '나도 수영복 모델 같았으면 하고 바란다'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문항이 포함되었다. 그러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자신의 가치 기준으로 내면화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인식 소척도에 대해서는 .71, 내면화 소척도에 대해서는 .88의 Cronbach's alpha가 보고되었으며(Heinberg, Thompson & Stormer, 1995),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전체 척도에 대해 .79, 인식 소척도에 대해 .52, 내면화 소척도에 대해 .82로 나타났다.

섭식 장애 척도(Eating Disorder Inventory-2: EDI-2)

이 척도는 Garner와 Olmsted가 1984년에 제작한 척도를 1990년에 Garner가 개정한 것으로, 신경성 거식증과 폭식증에 관련된 증상들을 측정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자기 보고식 도구로서 6점 척도상에 응답한다(Garner, 1990). 8개의 소척도와 3개의 연구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소척도는 마르고 싶은 욕망(Drive for Thinness), 폭식증(Bulimia), 신체 불만족(Body dissatisfaction), 비효율성(Ineffectiveness), 완벽주의(Perfectionism), 대인간 불신(Interpersonal Distrust), 내부 감각 인식(Interoceptive Awareness), 성숙에 대한 공포(Maturity Fears)이며, 연구 척도는 금욕주의(Asceticism), 충동 조절(Impulse Regulation), 사회적 불안정(Social Insecurity) 이다. 이중 본 연구에서는 신체의 다양한 영역의 전반적인 모양과 크기에 대한 불만족

을 측정하는 신체 불만족 척도, 통제할 수 없는 폭식에 대한 생각과 행동 경향을 측정하는 폭식증 척도, 다이어트에 대한 극단적인 관심, 체중에 대한 몰두, 체중 증가에 대한 공포를 측정하는 마르고 싶은 욕망 척도의 3개 소척도만을 사용하였다. 모든 소척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증상의 정도가 심해짐을 반영한다. 각 소척도들에 대해 보고된 Cronbach's alpha는 각각 .91, .69, .81이며(Shore & Porter, 1990), 우리 나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각각 .92, .86, .92(Ryu, Lyle, Galer-Unti & Black, 1999)로, 본 연구에서는 각각 .87, .73, .86으로 나타났다.

식사 태도 척도(Eating Attitude Test-26: EAT-26)

이 척도는 신경성 거식증과 관련된 행동과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Garner와 Garfinkel(1979)이 제작한 척도를 26문항으로 개정한 척도이며 6점 척도상에 응답한다(Garner, Olmsted, Bohr & Garfinkel, 1982). 이 척도는 신경성 거식증 환자의 여러 행동과 태도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나, 정상 체중인 사람들중 심각한 섭식 문제를 지닌 사람들을 확인하는 데에도 유용한 도구이다. 이 척도는 다이어트, 폭식증과 음식에 대한 몰두, 섭식 통제의 3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점 이상일 때 병리적인 다이어트 행동을 보이는 사람으로 판단되므로, 신경성 거식증의 가능성을 시사한다(Garner, Olmsted, Bohr & Garfinkel, 1982). 원 척도의 신뢰도는 .94이며(Garner & Garfinkel, 1979), 이전 국내 연구에서는 .85의 신뢰도를 보였으며(이상선, 1994),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Cronbach's alpha는 .82로 나타났다.

체형 설문지(Body Shape Questionnaire)

이 척도는 체형에 대한 관심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34문항이며, 6점 척도상에 응답한다(Rosen, Jones, Ramirez & Waxman, 1995). 이 척도는 주로 '자신의 신체가 과도하게 크고 뽕뽕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내용으로 하는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에 대한 관심이 크며 '뽕뽕한 느낌'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을 반영하며, 전반적인 신체 만족도가 낮음을 시사한다. 이 척도의 Cronbach's alpha는 .88로(Rosen, Jones, Ramirez & Waxman, 1995), 본 연구에서는 .96으로 나타났다.

Rosenberg의 자아 존중감 척도(Rosenberg's Self-esteem scale).

이 척도는 자기 가치나 자기 수용에 대한 일반적인 느낌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10문항이며, 4점 척도상에 응답한다(Rosenberg, 1965; Blascovich & Tomaka, 1991에서 재인용).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이 높음을 시사한다. 자아 존중감과 신체 이미지에 관한 이전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6으로(McAllister & Caltabiano, 1994),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7로 나타났다.

결 과

요인 분석

SPSS 10.0을 이용하여 SATAQ 척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SATAQ 척도 제작 시 사용한 요인 분석과 같은 방법인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여 요인을 추출하였고, oblimin 방법(delta=0)으로 회전하였다.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은 모두 4개로, 고유치 값은 4.00, 1.56, 1.34, 1.03이었다. 이중 2개 요인의 문항들은 모두 원 척도의 사회문화적 기준에 대한 인식 소척도 문

표 1.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태도 척도의 요인 분석(형태 계수 행렬)

문항	요인 계수	
	1(내면화) α=.82	2(인식) α=.52
문항 14. 나는 흔히 여성 잡지(코스모폴리탄, 보그등등)를 보고 내 외모를 모델들과 비교한다.	.74	-.11
문항 3. 날씬한 여자들을 보여주는 뮤직 비디오는 내가 날씬했으면 하고 바라게 만든다.	.73	3.24E-02
문항 5. 나는 잡지와 TV에 나오는 사람들과 내 몸을 비교해보는 경향이 있다.	.72	-.16
문항 1. TV와 영화에 나오는 여자들은 내가 목표로 생각하는 유형의 외모를 보여준다	.71	5.22E-02
문항 13. 나는 내가 수영복 모델같았으면 하고 바란다.	.67	-3.4E-02
문항 7. 날씬한 여자들의 사진들은 내가 날씬했으면 하고 바라게 만든다.	.65	.11
문항 2. 나는 날씬한 모델이 입은 옷이 더 나아보인다고 믿는다	.54	9.52E-02
문항 4. 나는 잡지에 나오는 모델처럼 보이길 바라지 않는다*	.47	.28
문항 10.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이 날씬해질수록, 더 보기 좋아진다고 믿지 않는다*	-.19	.85
문항 11. 사람들은 당신이 날씬해질수록, 옷맵시가 더 좋아진다고 생각한다.	.12	.70
문항 6. 우리 사회에서, 뚱뚱한 사람들은 매력적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6.4E-03	.49
문항 12. 오늘날의 사회에서 항상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11	.43
고유치	3.84	1.52
전체 설명 변량	44.64%	

* 역으로 채점되는 문항임

항과 동일하였으며, 나머지 2개 요인의 문항들은 모두 원척도의 내면화 소척도 문항과 동일하였다. 그러므로, 문항의 내용상, 4개의 요인들을 모두 독립적인 요인으로 간주하는 것보다는 해석 가능성과 Scree plot을 고려하여 2개 요인을 추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요인 개수를 2개로 지정하고 다시 주성분 분석과 oblimin 방법(delta=0)을 이용하여 요인 계수 행렬을 추출하였다. 그 결과, 문항 8은 요인 계수가 .40에 미치지 못해 문항 8을 제거하고 다시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시 문항 9가 요인 계수 .40에 미치지 못해 제거하였다. 그리하여, 척도의 14문항

중 8번 문항과 9번 문항을 제거한 12문항을 요인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산출된 2요인 구조는 인식 소척도의 8번, 9번 문항을 제외하고는 SATAQ 척도를 제작할 때 미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요인 분석에서 산출된 2요인 구조(Heinberg, Thopson & Stormer, 1994)와 유사하였으며, 미국 여중생을 대상으로 한 요인 분석에서 산출된 2요인 구조(내면화 소척도의 14번 문항이 제외된)와도 유사하였다. 그러므로, 요인 분석 결과,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척도(SATAQ)의 요인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

은 것으로 보인다. 추후 분석에서는 원 척도의 소척도가 아닌 본 연구의 요인 분석 결과에 의해 구성된 소척도를 이용하였다.

SATAQ 하위 척도와 섭식 장애 관련 척도간 상관 관계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태도 척도 전체와 인식 소척도, 내면화 소척도간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다(표 2 참고). 내면화 소척도는 전체 척도와 높은 상관을, 인식 소척도는 전체 척도와 중간 정도의 상관을 보였다. 척도 개발시 인식 소척도와 내면화 소척도는 .34의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나(Heinberg, Thompson & Stormer, 1995),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면화 소척도와 인식 소척도간의

상관계수는 .29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척도와 섭식 장애 병리 측정 척도들, 체형 설문지, 자아 존중감 척도, 신체 질량지수와 상관계수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섭식 장애 환자들과 섭식 장애가 아닌 정상 여성들을 대상으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척도를 사용한 이전 연구 결과(Griffiths, Beumont, Russell, Schotte, Thornton, Touyz & Varano, 1999)를 통해 내면화 소척도와 섭식 장애 병리 측정 척도들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정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24~.46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러나, 섭식 장애가 아닌 정상 여성들은 인식 소척도와 섭식 장애 병리 척도들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Griffiths, Beumont,

표 2.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태도 척도와 다른 척도들간의 상관 관계

척도	SATAQ -A	SATAQ -I	BMI	BSQ	EAT-26	EDI-2	EDI -DT	EDI -B	EDI -BD	RSS
SATAQ	.62 **	.93 **	.10	.54 **	.39 **	.50 **	.50 **	.25 **	.39 **	-.12 *
SATAQ-A		.29 **	.25 **	.29 **	.28 **	.32 **	.35 **	.15 **	.24 **	-.05
SATAQ-I			.01	.53 **	.35 **	.46 **	.44 **	.24 **	.37 **	-.12 *
BMI				.45 **	.08	.39 **	.28 **	.14 *	.43 **	-.05
BSQ					.62 **	.82 **	.76 **	.44 **	.69 **	-.25 **
EAT-26						.67 **	.77 **	.51 **	.38 **	-.12 *
EDI-2							.85 **	.62 **	.27 **	-.22 **
EDI-DT								.43 **	.55 **	-.11 *
EDI-B									.36 **	-.16 **
EDI-BD										-.24 **

SATAQ: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척도, SATAQ-A: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척도 인식 소척도, SATAQ-I: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척도 내면화 소척도, BMI: 체중 질량 지수, BSQ: 체형 설문지, EAT-26: 식사 태도 척도-26, EDI-2: 섭식 장애 척도-2, EDI-DT: 섭식 장애 척도 마르고싶은 욕망 소척도, EDI-B: 섭식 장애 척도 폭식증 소척도, EDI-BD: 섭식 장애 척도 신체 불만족 소척도, RSS: 로젠버그 자아 존중감 척도.

* $p < .05$ (양측 검증) ** $p < .01$ (양측 검증)

Russell, Schotte, Thornton, Touyz & Varano, 1999), 본 연구에서는 인식 소척도의 경우에도 섭식 장애 병리 측정 척도들과 .15~.35의 상관관계를 보여서 우리 나라에서는 날씬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을 내면화하는 정도와 더불어 민감하게 인식하는 정도도 섭식 장애 병리 발생과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섭식 장애 환자 집단, 정상 여성 집단, 여중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이전 연구들(Smolak, Levine & Thompson, 2001; Griffiths, Beumont, Russell, Schotte, Thornton, Touyz & Varano, 1999)을 통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척도중 내면화 소척도는 신체 불만족, 체중 질량지수와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일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신체 불만족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실제 비만 정도를 반영하는 신체 질량지수와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아, 가정이 일부만 지지되었다. 또한 인식 소척도는 본 연구에서 신체 불만족과 체중 질량 지수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 결과는 여중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Smolak, Levine & Thompson, 2001) 및 여대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Heinberg, Thompson & Strome, 1994)와도 일치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의 정도는 날씬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을 민감하게 인식하는 정도와 그 기준을 자신의 가치로 내면화하는 정도가 모두 정적인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비만 정도를 나타내는 신체 질량지수와는 인식 소척도만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인식 소척도와 내면화 소척도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이전 연구들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자아 존중감 척도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척도의 두 소척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

전 연구가 없으나, 전반적인 자기 가치에 대한 평가, 즉, 자아 존중감은 날씬한 신체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의 인식과는 독립적일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날씬한 신체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의 내면화는 자아 존중감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일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 이유는 날씬한 신체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의 내면화는 자신이 속한 사회와 문화에서 이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신체와 자신의 신체를 지속적으로 비교하게 만드는데, 이러한 이상적인 신체는 현실적으로 성취하기 어려우므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을 증가시키고, 이는 결과적으로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부정적으로 이끌 것이기 때문이다. 가정한 대로, 인식 소척도의 경우,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내면화 소척도의 경우, 유의한 부적 상관 관계가 나타났다. 즉, 날씬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에 대한 인식 정도는 전반적인 자기 가치 평가와는 독립적이나, 이러한 기준에 대한 내면화 수준의 증가는 전반적인 자기 가치 평가 수준의 감소와 연결되며, 이러한 자아 존중감의 저하는 궁극적으로는 섭식 장애 등 여러 심리 장애에 대한 취약성과 관련될 것으로 보인다.

집단간 SATAQ 평균 점수 비교

본 연구의 대상 집단에게 “당신은 현재 체중 감량을 위해 특별히 다이어트나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하여 현재 다이어트나 운동을 하는 집단과 현재 하고 있지 않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현재 체중 감량을 시도하고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척도의 점수가 높을 것으로 가정하였고, 두 집단의 평균 점수를 t-test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즉, 현재 체중 감량

표 3. 현재 체중감량 시도 여부와 과거 체중 감량 시도 횟수에 따른 집단간 차이

현재 체중감량 시도 여부	시행 집단 (n= 62)	비시행 집단 (n=298)	t
SATAQ 전체 척도	43.90(6.55)	40.70(6.97)	3.32 **
인식 소척도	15.18(2.27)	14.20(2.72)	2.64 **
내면화 소척도	28.73(5.21)	26.50(5.77)	2.82 **
과거 체중 감량 시도 횟수	2회 이상 시도 집단 (n=150)	0~1회 시도 집단 (n=203)	t
SATAQ 전체 척도	42.98(6.94)	39.92(6.71)	-4.17 ***
인식 소척도	14.71(2.61)	14.13(2.67)	-2.03 *
내면화 소척도	28.28(5.74)	25.80(5.46)	-4.13 ***

* $p < .05$ (양측 검정) ** $p < .01$ (양측 검정) *** $p < .001$ (양측 검정)

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에 대한 인식과 내면화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또한 대상 집단에게 “당신은 과거에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특별한 다이어트나 운동을 한 적이 몇 회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과거에 실시한 체중 감량 시도 횟수를 파악하였다. 360명의 대상 집단중 무응답 7명을 제외한 353명의 과거 체중 감량 시도 횟수 평균은 1.66회로, 0회에서 20회까지의 범위를 보였다. 이들을 상위 75 백분위에 해당하는 집단(2회이상 시도 집단과 그 미만인 집단(0~1회 시도 집단)으로 구분하여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태도 척도의 평균을 t-test로 비교하였다. 역시 상위 75 백분위에 해당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SATAQ 척도의 점수가 높을 것이라고 가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즉, 과거에 2회 이상의 체중 감량을 시도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에 대한 인식과 내면화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특히 이러한 차이는 내면화 소척도에서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섭식 장애 척도(EDI-2)와 식사 태도 척도(EAT-26)를 이용하여 섭식 장애 증상을 많이 보이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척도 점수를 비교하였다. 마찬가지로 섭식 장애 증상을 많이 보이는 집단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척도의 점수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높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먼저 섭식 장애 척도 EDI-2를 이용하여, 75 백분위 점수 이상 집단, 즉 섭식 장애 증상을 많이 보이는 집단과 25 백분위 점수 이하 집단, 즉 섭식 장애 증상을 적게 보이는 집단을 구분하고 이들을 비교한 결과, 섭식 장애 증상을 많이 보이는 집단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척도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고). 이러한 경향은 식사 태도 척도(EAT-26)를 이용하여 구분한 집단의 비교에서도 나타났다. 75 백분위 점수 이상 집단과 25 백분위 점수이하 집단을 비교한 결과, 증상이 많은 75 백분위 점수 이상 집단이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태도 척도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

표 4. 섭식 장애 증상 정도에 따른 집단간 차이

EDI-2	저증상 집단 (EDI-2 ≤ 10)	고증상 집단 (EDI-2 ≥ 25)	t
	(n=98)	(n=94)	
SATAQ 전체 척도	36.52(6.58)	45.61(5.69)	-10.23***
인식 소척도	13.16(2.73)	15.40(2.36)	-6.07***
내면화 소척도	23.35(5.75)	30.21(4.82)	-8.93***

EAT-26	저증상 집단 (EAT-26 ≤ 3)	고증상 집단 (EAT-26 ≥ 10)	t
	(n=117)	(n=93)	
SATAQ 전체 척도	38.26(6.02)	45.54(5.94)	-8.76***
인식 소척도	13.44(2.44)	15.45(2.45)	-5.92***
내면화 소척도	24.81(5.25)	30.09(5.14)	-7.31***

* $p < .05$ (양측 검정) ** $p < .01$ (양측 검정) *** $p < .001$ (양측 검정)

타났다(표 4 참고).

논 의

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척도 및 소척도의 타당화 자료를 제시하려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요인 분석과 상관관계 분석, 집단 비교 등을 통한 결과로 볼 때, 이전의 연구 결과들과 전반적으로 유사하므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척도(SATAQ)는 우리나라에서도 날씬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의 인식과 내면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SATAQ 척도 중 내면화 소척도는 전체 척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일 뿐 아니라 신체 불만족, 섭식 장애 병리 측정 척도들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인식 소척도 역시 섭식 장애 병리 측정 척도, 신체 불만족 척도뿐 아니라 실제 체중의 비만 정

도를 반영하는 체중 질량지수와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과거의 체중 감량 행동 시도 횟수를 통해 구분된 집단과 현재 체중 감량 행동 유무를 통해 구분된 집단에서 SATAQ 평균 점수의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결과는 이러한 날씬한 신체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기준의 인식과 내면화가 실제 다이어트나 체중 감량 행동과 같은 이상 섭식 행동과 연관됨을 알려준다.

이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TV와 잡지 등을 통해 매우 사실적으로 광범위하게 전달되는, 보통 여성들이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의 날씬한 신체는 여자 청소년들과 젊은 여성들로 하여금 우리 사회와 문화에서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것으로 여겨지는 신체에 민감해지고 그러한 신체를 자신의 이상적 기준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날씬한 외모를 강조하는 사회문화적 기준의 인식과 내면화는 자신의 신체와 이상적인 신체를 비교하게 만들고, 이러한 비교는 우리 사회 대부분의 여성에게서 자신의 신체

에 대한 불만족을 경험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다이어트와 같은 이상 섭식 행동을 이끌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회문화적 기준의 인식과 내면화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도 이상 섭식 행동과 섭식 장애의 유력한 위험 요인을 시사한다. 그러나, 매스 미디어를 통한 이러한 날씬한 외모를 강조하는 사회문화적 기준에 대해서 그 사회와 문화에 속한 모든 여자 청소년들과 젊은 여성들이 어느 정도 인식하고 내면화하지만, 그중 일부만이 이로 인한 신체 불만족을 경험하고 이상 섭식 행동을 일으키므로, 이러한 사회문화적 기준의 인식과 내면화가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일부 여자 청소년들과 젊은 여성들을 구분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매스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날씬한 신체를 강조하는 사회문화적 기준의 인식과 내면화가 이상 섭식 행동 및 섭식 장애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면, 매스 미디어를 통해 좀더 현실적인 여성의 신체상을 제시함으로써 지나치게 날씬한 신체를 강조하는 사회문화적 기준이 이상 섭식 행동 및 섭식 장애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음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요인 분석 결과에서도 인식 소척도에서 두 문항이 제외되었을 뿐, 원 소척도와 동일한 문항들로 소척도가 구성되었으므로, 날씬한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태도의 인식 측면과 내면화 측면의 구분에 대해서는 미국과 우리 나라간에 문화적 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즉, 우리 나라에서 식습관의 서구화, 미와 여성성에 대한 개념 변화, 다이어트 및 체중 조절 방법의 대중화, 현대화와 도시화에 대한 문화 적응 등을 포함한 서구화가 이미 이루어져서, 우리 사회의 문화, 특히 여자 청소년과 젊은 여성들이 포함되는 하위 문화는 미국과 유사한 것으로 생

각된다. 이렇게 우리 문화가 서구화된 경향은 이상 섭식 행동의 비율에서도 반영되는데, 한국판 식사 태도 척도-26을 사용하여 3062명의 성인 남녀에게 실시한 결과, 이상 섭식 행동을 반영하는 절단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피험자가 8.5%로, 서구화된 국가의 백인 여성들에게서 보고되는 비율과 유사하였다(Lee, Rhee, Park, Sohn, Chung, Hong, Lee, Chang & Yoon, 1998).

한가지 흥미로운 차이는 본 연구에서 SATAQ 내면화 소척도와 신체 질량지수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 여중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인식 소척도와 내면화 소척도 모두 신체 질량지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Smolak, Levine & Thompson, 2001).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신체 질량지수는 인식 소척도와만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을 뿐 내면화 소척도와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즉, 실제 비만 정도를 반영하는 신체 질량지수가 높을수록 날씬한 신체를 이상적인 신체로 규정하는 사회문화적 기준을 더욱 민감하게 인식하지만, 이러한 기준을 신체에 대한 자신의 가치 기준으로 내면화하는 것과는 독립적이었던 의미이다. 아마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이 대학생이고, 친밀한 관계 형성이 주요 관심사인 만큼, 정상 체중이거나 과소 체중인 피험자도 과다 체중이거나 비만인 피험자만큼 친밀한 관계 형성에서 이점으로 작용할, 날씬한 신체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을 자신의 가치로 내면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신체 질량지수와 SATAQ의 내면화 소척도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이상으로 볼 때,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척도는 받아들일만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지니고 있어서, 날씬한 신체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과 이상 섭식 행동 및 섭식 장애에 관한 연구시 잘

활용될 수 있는 도구로 보인다. 간편한 실시와 해석이 가능하므로, 대학생등 성인 집단뿐 아니라 청소년 집단에서도 이상 섭식 행동 혹은 섭식 장애의 위험군을 예측하거나 구분하고, 섭식 장애 환자의 치료 예후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로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현재 섭식 장애가 아닌 정상 대학생 집단만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이므로, 섭식 장애 임상 집단과 성인이 아닌 중고등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타당화 자료가 없다는 것으로,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이상선 (1994). 여대생의 식사 행동과 심리적 요인들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1999). 우리나라 사회지표중 보건 분야 건강 관리 방법. www.nso.go.kr.
- 한겨레 신문. 2003년도 5월 12일자.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ourth Edition*.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Washington D. C.
- Becker, A. E., Burwell, R. A., Gilman, S. E., Herzog, D. B. & Hamburg, P. (2002). Eating behaviours and attitudes following prolonged exposure to television among ethnic Fijian adolescent girl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80, 509-514.
- Blascovich, J., & Tomaka, J. (1991). Measures of self-esteem. In J. P. Robinson, P. R. Shaver & L. S. Wrightsman (Eds.). *Measures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attitudes* (pp.115-160).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Field, A. E., Camargo, C. A., Taylor, C. B., Berkey, C. S. & Colditz, G. A. (1999). Relation of peer and media influences to the development of purging behaviors among preadolescent and adolescent girls. *Archives of Pediatric Adolescent Medicine*, 153, 1184-1189.
- Garner, D. M. (1990). *Eating Disorder Inventory-2;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
- Garner, D. M. & Garfinkel, P.E. (1979). The Eating Attitude Test: An index of the symptoms of anorexia nervosa. *Psychological Medicine*, 9, 273-279.
- Garner, D. M., Olmsted, M. P., Bohr, Y., & Garfinkel, P. E. (1982). The Eating Attitude Test: Psychometric features and clinical correlates. *Psychological Medicine*, 12, 871-878.
- Griffiths, R. A., Beumont, P. J., Russell, J., Schotte, D., Thornton, C., Touyz, S. & Varano, P. (1999).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in dieting disordered and nondieting disordered subjects. *European Eating Disorders Review*, 7, 193-203.
- Groesz, L. M., Levine, M. P., & Murnen, S. K. (2002). The effect of experimental presentation of thin media images on body satisfaction: A meta-analytic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 31, 1-16.
- Harrison, K. (2001). Ourselves, our bodies: Thin-ideal media, self-discrepancies, and eating disorder symptomatology in adolescent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0(3), 289-323.
- Heinberg, L. J., Thompson, J. K., & Stormer, S. (199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 Questionnair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 17(1), 81-89.
- Lee, Y. H., Rhee, M. K., Park, S. H., Sohn, C. H., Chung, Y. C., Hong, S. K., Lee, B. K., Chang, P., & Yoon, A. R. (1998). Epidemiology of eating disordered symptoms in the Korean general population using a Korean version of the Eating Attitudes Test. *Eating and Weight Disorder*, 3, 153-191.
- McAllister, R. & Calabiano, M. L. (1994). Self-esteem, body-image and weight in noneating-disordered women. *Psychological Reports*, 75, 1339-1343.
- Rosen, J. C., Jones, A., Ramirez, E., & Waxman, S. (1995). Body Shape Questionnaire: studies of validity and reliabi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 20(3), 315-319.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yu, H. R., Lyle, R. M., Galer-Unti, R. A. & Black, D. R. (1999). Cross-cultural assessment of eating disorders: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of a Korean version of the Eating Disorder Inventory-2 and the Bulimia Test-Revised. *Eating Disorders*, 7, 109-122.
- Shore, R. A., & Porter, J. E. (1990). Normative and reliability data for 11 to 18 year olds on the Eating Disorder Inventory.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 9, 201-207.
- Smolak, L., Levine, M. P., & Thompson, J. K. (2001). The use of the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 with middle school boys and girl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 29, 216-223.
- Stice, E. (2001). Risk factors for eating pathology: Recent advances and future directions. In R. H. Striegel-Moore & L. Smolak (Eds.). *Eating Disorders: Innovative Directions in Research and Practice*.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s.
- Stice, E. & Agras, W. S. (1998). Predicting onset and cessation of bulimic behaviors during adolescence: A longitudinal grouping analysis. *Behavior Therapy*, 29, 257-276.
- Stice, E., Mazotti, L., Krebs, M. & Martin, S. (1998). Predictors of adolescent dieting behaviors: A longitudinal study.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12, 195-205.

원 고 접수 일 : 2003. 7. 21

수정원고접수일 : 2003. 9. 19

게재결정일 : 2003. 11. 2

Validation study of the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 in Korea

Sang-Sun Lee

Kyung-Ja Oh

Yonsei University

The Korean version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SATAQ) was administered to 360 Korean female university student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vealed a 4 factor model is fit for data, but, scree plot and interpretability of factors supported a 2 factor model. Correlation between SATAQ and other measures of body dissatisfaction and eating disorder symptoms were significant. Mean score of the SATAQ was higher in the present weight-control group, the group with more experiences of weight-control and the high eating disorder symptom group than the no weight-control group, the group with less experiences of weight-control and the low eating disorder symptoms group, respectively. So, the SATAQ seems to be an adequate assessment tool for identification of risk factors and prognostic indicators of eating disorders.

Keywords :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disordered eating, eating disorder.